P-6

혈액투석 환자에서 발생한 경막외 농양 2예

부산 성모병원 내과

김영환, 정순명, 유진택, 최 정

Two Cases of Spinal Epidural Abscess in Hemodialysis Patients

Young Hwan Kim, Soon Myeong Jeong, Jin Taek Yoo, Jung Choi

St. Mary's Medical Center, Busan,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서론: 혈액투석 환자에서 경막외 농양은 흔하지 않으며 초기에 비특이적인 증상만 나타나므로 조기 진단이 어렵고 진행하게 되면 신경학적 합병증 및 사망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질환이다. 최근에는 발생 빈도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혈액투석 환자에서는 투석을 위해 사용되는 중심정맥 카테터에 의한 감염이 원인으로 종종 보고되어지고 있다. 저자들은 최근 혈액투석 환자에서 발생한 경막외 농양 2예를 경험하였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1: 68세 여자가 폐쇄성 요로병증으로 1년간 혈액투석 치료를 받아오던 중 전신 위약감으로 쓰러져 발생한 두피열상으로 신경외과에 입원하였다. 다음날 의식저하 및 혈압저하로 내과로 전과되어 시행한 혈액배양 검사 결과 메치실린 내성 포도알균이 확인되어 vancomycin을 투여하였다. 입원 2개월째 점차 악화되는 요통으로 시행한 자기공명영상촬영에서 흉추부 (T10-11) 앞쪽 경막외 농양이 발견되어 세침흡인검사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고 수술을 고려하던 중 전신상태 악화로 입원 70일째 사망하였다.

증례2: 67세 여자가 당뇨병성 신증으로 6개월간 혈액투석 치료 받아오던 중 허리통증 및 발열로 입원하였다. 입원시 시행한 자기공명촬영에서 요추부 (L4-5)에 척추근육사이 농양 및 앞쪽과 뒤쪽 경막외 농양이 관찰되었으며 혈액배양 검사에서는 옥사실린 감수성 포도알균이 배양되어 cefazolin을 투여하기 시작하였다. 항생제 치료 한 달째 메치실린 내성 포도알균으로 전환되어 vancomycin으로 교체하였으며 8주간 투여 후 임상적으로 호전되어 현재 재활치료 중이다.

결론: 증상발현에서 진단까지의 시간이 예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기 때문에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가 갑작스런 발열과 요통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척추 경막외 감염을 의심하여 조기에 진단하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Key Words: 경막외 농양, 혈액투석, 허리통증
Epidural abscess, Hemodialysis, Back pain

